

영암 달빛청춘마루, 지역 청년 성장 허브 '발돋움'

청년 문화 활동·교류 공간...대관 신청 잇따라 프로그램 만족도 ↑ ...타 지자체 벤치마킹 행렬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가 지역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 활용돼 지역사회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개관 청년의 꿈과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달빛청춘마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달빛청춘마루는 12월 현재까지 152건 대관 신청과 사용 인원 2천883명이라는 성과를 내며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청춘클래스'를 포함한 총 26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886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4.7(5.0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청년종합소통센터의 혁신적인 운영 사례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안, 목포, 영광 등 인근 지역 관계자들이 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달빛청춘마루의 성공 비결을 배워 갔다.

이 뿐만 아니라 전남 국제협력지원관 등에서 주최하는 제2회 한·중(전남도-저



영암군이 지난 6월26일 청년 소통의 장이 될 달빛청춘마루 개관식과 청년 공직자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달빛그린빌 개관식을 열고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장성)포럼과 제3회 청년의 날(난터우 시 우호도시)에는 청년정책 발전 방향

과 혁신 사례 발표를 통해 영암군 청년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 외에도 청년들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커뮤니티실은 공유주방

과 휴게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월 210여명의 청년이 모임과 소통공간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감으로 떠나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주제로 청년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체험하고 즐기는 육아나눔터와 영상편집·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청년들의 모바일 환경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수 있는 미디어실은 청년들의 모임과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달빛청춘마루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이루고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통해 청년 중심의 청년기회도시 영암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나주시,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새롭게 바뀐다

가격 ↑ ·디자인 변경...신·구 종량제봉투 혼용사용·교환기간 운영

나주시가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디자인을 변경한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1일 나주시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개정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신·구 종량제봉투 혼용사용 및 교환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운영하고 2월부터는 기존 종량제봉투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관내 192개 판매소에서 인상 차액을 지불하거나 기존 구매 가격에 맞는 여러 규격의 신형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기존 20ℓ 봉투 10매를 신형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려면 1천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20ℓ 6매와 5ℓ 2매로 나눠 교환할 수 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5ℓ 80원→110원 ▲10ℓ 130원→200원 ▲20ℓ 250원→380원 ▲30ℓ 360원→510원 ▲50ℓ 570원→900원 ▲75ℓ 900원→1천27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디자인도 변경돼 모든 종량제봉투는 녹색 반투명으로 통일되며 외국인도 이해하기 쉬운 그림문자(픽토그램)가 추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겪게 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기존 종량제봉투



변경되는 종량제봉투 디자인. (나주시 제공)

혼용·교환 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롭게 판매되는 종량제봉투는 20일부터 나주시 전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미화과(061-339-8943)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꿀팁드림' 호응

박진호 안무가 초청 비전·노하우 공유

목포YMCA가 운영하는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의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꿀팁드림(Dream)'이 지난 4월부터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목포YMCA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댄스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문복주 송원대학교 공연(실용)예술학과 교수와 박진호 안무가를 초청해 실제 활동 중인 아이돌 댄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

박진호 안무가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축하 공연"을 비롯해 'NCT DREAM', 'THE BOYZ', '임영웅'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업한 경력을 갖춘 유명 안무가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제 댄서들의 노하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제 댄서들의 노하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꿀팁드림(Dream)' 토크콘서트 모습. (목포=정종환 기자)

했다.

문복주 교수는 "청소년들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061-244-1318)로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목포=정종환 기자



해남군이 지난 7월 해남군민광장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정 관계자들과 함께 음악분수 조성 기념 통수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아래 사진은 군민광장의 바닥분수 전경. (해남군 제공)

해남 올해의 시책 '군민광장 바닥분수' 대상

정책페스티벌 경진대회 개최...군민친화형 친수공간 호응

해남군이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4년 정책페스티벌 경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군민친화형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바닥분수가 대상을 차지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우수 군정시책과 해남형 ESG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시책과 ESG 실천사례는 지난달부터 직원·군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사례를 정책페스티벌 경진대회 본선에서 2차 심사를 가졌다.

올해 대상은 문화예술과의 '군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이 차지했다. 해남군민광장의 기존 분수대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66m 길이의 바닥분수는 역대 최대 폭염이 몰아친 올여름, 군민들에

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바닥분수는 늦은 오후에 음악과 조명, 분수가 어우러진 음악분수가 운영돼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름철 명소로 자리 잡았다.

최우수상은 우슬맨발산책로 조성이 선정됐다. 우슬체육공원 인근에 약 1km 구간의 맨발산책로는 매일 수백명이 찾는 정도로 인기를 끌며, 해남에 맨발 걷기 열풍을 주도했다.

이용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야간 산책을 위한 가로등과 세족장, 신발보관함, 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보행로와 안전시설도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우수시책으로는 ▲끈질긴 노력으로



바람 구해의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낸 농정시책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한 김치축제 참여 ▲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등 3건이 선정됐다.

해남형 ESG 실천사례로는 ▲일회용품 제조 축제로 치러진 해남미남축제 ▲면면 참여형 ESG 실천을 확산한 마산면 사례가 소개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내년에도 유의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본격 운영

놀이 공간·수유실 등 구성...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무안군은 9일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1층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사진)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 약 7천300만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를 지원받아 조성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137.56㎡ 규모로 놀이·활동공간, 프로그램실, 수유



실, 영·유아 전용 화장실로 구성돼 있으며, 양육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소독기, 기저귀

같이대, 수유소파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공동 육아를 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며 돌봄 품앗이 활동, 자녀와 양육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무안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산 무안군수는 "양육자 뿐만 아니라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완도군,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난방비·방한용품 등 전달도

완도군은 9일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1천675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난방비와 방한 용품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300세대의 위기가구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 직접 방문, 긴급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아동, 고독사 위험군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봉사단체와 힘을 모아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급 계획이다.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개월 동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모금하고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추운 겨울, 소외되는 군민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총출동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원하는 경우 완도군 희망복지팀(061-550-5312) 또는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영광군은 9일 "오는 19일까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영광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4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 0.2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후·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2023년도 매출증빙 서류를 구비해 일지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